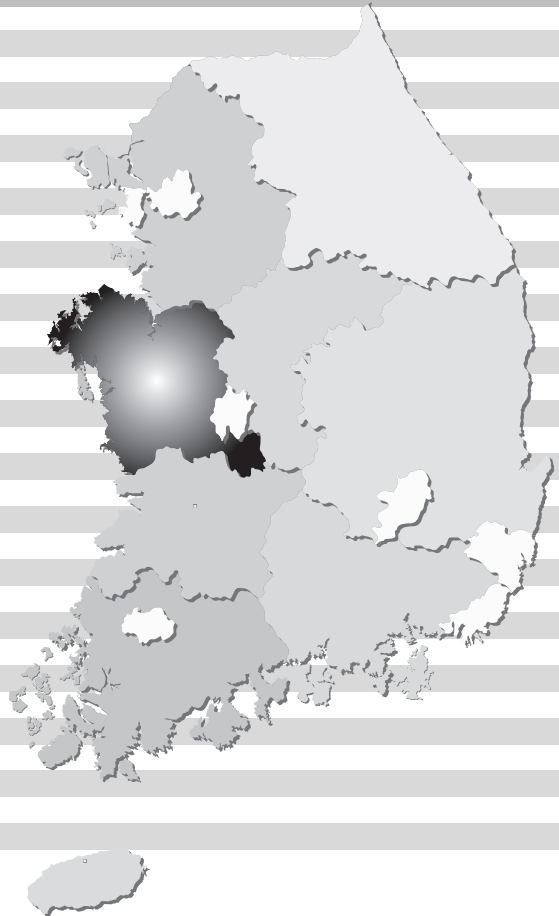


11 충청남도

천안시갑 | 양승조
천안시을 | 박상돈
공주시·연기군 | 심대평
보령시·서천군 | 류근찬
아산시 | 이명수
서산시·태안군 | 변웅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이인제
부여군·청양군 | 이진삼
홍성군·예산군 | 이회창
당진군 | 김낙성



선거구명	천안시갑	양승조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청수역, 독립기념관역, 수신·성남역, 병천·동면역, 청주공항까지 잇는 전철역 신설

■ **현황 및 필요성**

- 천안시 인구가 55만명이 넘어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청주공항이 건설되어, 이 지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천안역까지 수도권광역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으나, 기존 노선으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철역 노선연장이 필요함.

■ **목표**

- 천안시 청수동,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병천, 동면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전철역 건설

■ **추정 소요재원**

천안역~청수역~독립기념관역~병천역 : 7,763억원(2006년 경상가 기준)

- 천안역~청수역 : 1,358억원
- 청수역~독립기념관역 : 2,989억원
- 독립기념관역~병천역 : 3,416억원

■ **재원조달**

- 재원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전액 국비 조달

■ **이행시기**

- 전철역 신설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의뢰 :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토해양부에 의뢰 : 당선직후
- 전철역 건설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공청회, 간담회 실시 : 2008년 하반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 2008년도 말까지
- 2009년 초 착공, 2012년 완공 목표

공약 2

천안 남부터미널 신설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천안시 교통망이 신부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발생적인 도로망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신부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를 분산할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남부터미널 신설

■ 추정 소요재원

- 총사업비 : 최근 20년간 도심 터미널 건설사업 관련자료 요청 중임.

■ 재원조달

- 부지는 국가 및 지자체와 협의, 시설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 이행시기

- 물류현황, 교통량 분산 등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당선직후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실시 : 2008년 하반기
- 건설업체 등 접촉으로 컨소시엄 형성 추진 : 2009년 말까지
-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

공약 3

'1 읍면동별 1 다목적강당' 설치로 시민복지공간 조성, '청소년 수영장 등 청소년문화복지관 건립

■ 현황 및 필요성

- 천안시 인구는 빠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복지시설 공급이 그에 따르지 못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공간 조성이 필요함.
- 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영장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복지관'이 필요함.

■ 목적

- 1 읍면동별 1 다목적 강당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 ※ 두정초, 청수초, 안서초, 용곡중 등 다목적강당 신축

- 청소년 수영장 건립 등 청소년문화복지시설 확충

■ 소요자원 추정

- 39개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다목적 강당 건립예산 390억원 소요

■ 자원조달

- 국회 상임위 활동으로 국비 확보, 충청남도 지원 유치, 기부채납

■ 이행시기

- 2008년 15개 학교 150억원
- 2009년 14개 학교 140억원
- 2010년 10개 학교 100억원
- 총 39개 학교 390억원

공약 4

천안 구도심지역 재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유관기관 협력

■ 현황 및 필요성

- 천안 구도심은 도로망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 유동인구 감소로 상가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천안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구도심 재개발 또는 재정비 사업 추진이 절실함.

■ 목적

- 천안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원

■ 방법

-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추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장, 충청남도지사와 긴밀협력
- 관련 법령 정비 및 지원체계 마련
- 재개발지원공사(가칭) 법인 설립 추진
- 재개발 지원가능한 기금 마련 가능여부 확인 후 추진

■ 소요 자원추정액 및 자원조달

- 소요자원 추정 불가, 민자유치

■ 이행시기

- 당선 직후, 공청회, 간담회 추진
- 관련법안 발의(6월 국회), 2008년 본회의 법안 통과 목표
- 2009년 재개발 사업 계획안 작성 및 추진 준비 작업
- 2010년 재개발 추진 정상화, 2015년 도시 재정비 완성 목표

공약 5

아동수당제도 도입으로 아동복지 증진과 가정의 육아부담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터키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선진국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 일본 12세, 스웨덴·영국·독일 15세, 이탈리아·스위스 18세까지,
- 특히 0 ~ 24개월 미만의 아동은 대부분 출산가정이나 그 조부모 등 친인척이 키우고 있는 실정임.

■ 목적

- 아동수당제도 도입으로 육아부담경감

■ 주요 정책내용

-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 소요재원 추정액

- 2008년 1,300억원

■ 재원조달

- 국비·지방비

■ 이행시기

- 2008년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 목표
- 2009년 시행

선거구명	천안시을	박상돈
정 당 명	자유선진당	

공약 1 |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 그 동안 천안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대학신설 제한등 수도권 규제강화 조치에 힘입은 바 컸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 최인접한 천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장과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에 산업체와 대학교의 신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천안 소재 산업체도 수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증가로 천안소재 대학교에 신입생 충원을 못하는 대학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과적으로 천안과 충청도를 죽이는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 이에 저 박상돈은 국토균형발전 정책 측면을 강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 또는 최소화하고 지방 발전의 최첨단지역인 천안지역의 독자발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 2 | 국민연금 가입 자율화 적극 추진

-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 실제로는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은 국민연금보험입니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한 준조세로써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천안시의 국민연금 체납 누적액은 200억원을 넘어서고 지역가입자의 50%이상이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존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민 연금 가입 의무화정책이 사실상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한 실패한 정책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보험 시장의 보편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의 선택적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저 박상돈은 제18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3 노령수당 지급 확대 추진

- 현재 노령수당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전체 노인중 6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70%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이렇게 수당지급기준을 비율로 구분하다보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중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급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등과 같은 소유재산의 경우는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생계비가 아닙니다.
- 이에 저 박상돈은 제 18대 국회에서 노인분들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어린이 방과 후 하교시, 안전보호자 운영」 지원

- 방과 후 학원수강 등 어린이들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친구들과 떨어져 저마다 다른 행선지로 하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하교시간대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교시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유괴문제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확보해야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에게만 어린 학생들의 하교 보호자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에 하교보호 의무화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안전보호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리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5 성환중축장 부지 활용, 「첨단경제연구도시」 개발 추진

-
- 천안시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중축장은 양호한 광역교통망과 수도권과의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의 개발여력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 천안시의 장기적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곳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개발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천안시는 교육도시로서 고급 인력자원이 풍부한 반면 기조성된 전문산업단지와 연계할 R&D 및 산.학.연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테크노벨리의 첨단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 박상돈은 천안시 북부지역인 국립중축장 부지에 첨단지식기반의 「첨단경제연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첨단경제연구도시 조성을 통해 국립중축장 부지를 전자정보관련R&D 허브로 육성시키고 주거 및 생산기능을 결합한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산.학.연이 연계하여 초일류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으로 조성시킨다면 천안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천안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구명	공주시 · 연기군	심대평
정 당 명	자유선진당	

공약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연기 공주발전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건설 구상에 세종시와 대덕 R&D 특구를 연계시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공주간 경전철과 공주~행정도시~청주공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하겠습니다.

공약 2 금강 종합개발계획 본격 추진

- 금강 종합개발계획은 백제에 이은 충청의 또 다른 문화경제권을 만들어가는 웅대한 작업입니다.
- 충청의 젓줄 금강을 중심으로 공주유원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공주연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금강문화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금강종합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공약 3 국립의료원 유치 및 국립간호대학 유치 추진

- 국립의료원 유치는 약 3조원의 경제파급력이 있습니다.
- 국립의료원 유치와 더불어 국립간호대학과 한의전문대학 동시 이전을 추진해 우리 공주 연기 지역을 공공 생활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노인복지타운 역시 치료, 여가, 휴양이 함께하는 종합복지레저 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공약 4 세종시의 지속 건설 및 신행정수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 추진은 물론 세종시가 최초 원안대로 신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

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해야하며 국가와 국민, 연기와 공주 지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공약 5

국제영어기숙학교(IBS) 설립

- 더 이상 자녀의 어학연수를 위해 기러기 가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영어기숙학교를 (IBS, International Boarding School) 설립해 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우수학생들을 유치해 중추적인 외화 수입 원인 동시에 지한파(知韓派) 유학생을 길러내는 국제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 국제영어기숙학교는 연기공주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또한 국제기숙학교 설립을 통해 공주를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선거구명	보령시·서천군	류근찬
정당명	자유선진당	

공약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지지하고, 보령신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은 식수원을 구정물로 바꾸는 ‘환경을 죽이는 사업’ 일뿐만 아니라, 연간 SOC 예산이 18조원 수준인 현 상황에서 건설비용 60조원을 투자한다면 보령신항을 포함한 항만개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대운하 건설계획을 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지난 1997년 7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6개 신항만 중 하나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나머지 5개 신항만과 달리 1998년 실시설계 완료 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보령신항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에서 보령신항 문제를 “지역차별적 항만정책을 바로잡고 항만건설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해 지정고시 후 10년 만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보령신항 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2 **국도 21호선·36호선 개량사업, 보령~안면간 연륙교 건설사업 등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의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당시 ‘장항산단 조기착공과 함께 서천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어렵게 관철시킨 서천~보령간 국도 21호선 확·포장 사업이 2007년과 2008년 예산확보로 현재 용지매입 단계에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10년 이상 지역 현안인 국도 36호선 19.8km 확·포장사업을 17대 국회에서 어렵게 제2차 국도확·포장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만큼,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중 실시설계와 용지매입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령지역 숙원사업인 보령~안면간 연륙교 조기착공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어렵게 기본설계와 검증 용역비, 사업 착공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3

장항산단 대안사업을 계기로 서천을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 18년 동안 끌어오던 장항산단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실시를 계기로 서천을 산업과 환경·생태시설이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 이를 위해 내륙산업단지가 개발계획 확정을 거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산단조성 전후에 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BT관련 기업·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대안사업이 서천지역 고용창출 및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숙박단지 조성, 연구인력 정주를 위한 택지개발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수족관 건립으로 서천을 특화된 해양생물 학습 및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나아가 대안사업 실시로 유입되는 연구 인력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 및 관내 특성화고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원어민 교사를 보유한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대안사업 관련 유입인구의 서천정주를 유도하겠습니다.

공약 4

무너지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 정부가 350만 농민들에 대한 확실한 생존권 보호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온 실질적인 견인차 농촌진흥청 폐지계획을 끝까지 막아냄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쌀 자급률 100% 유지와 밀, 콩 등 품목별 자급률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부·사료업체·농가의 출연금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사료 값이 오를 경우 농가의 부담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행 85%인 쌀소득보전 직불금 비율을 장차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목표소득 보전 직불제'와 '생계형 직불제' 도입 등 각종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을 일괄적으로 50%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험사측은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말까지 6개 시군에서 동원된 지역주민 연인원 14만 여명에 대한 인건비(98억 여원)는 지급했으나, 2008년분 인건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름유출사고의 여파로 방제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2008년분 방제작업 인건비 조기집행 및 현재 지난 2007년분 일부만 한정지급 후 누락돼있는 방제작업 동원어선에 대한 비용을 보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2월 통과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과 조만간 마무리될 시행령의 개선을 통해, 무면허 맨손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의 국책사업 우선시행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아산시	이명수
정 당 명	자유선진당	

공약 1 **명문교육 유치 및 육성 통한 아산인재 육성**

- 아산의 많은 인재들이 매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종합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된 교육시설과 환경하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고등학교의 명문고교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배방지역에 서울수도권의 교육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아산교육의 전성시대를 열게 하겠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인주지구가 ‘교육특구’로 지정, 추진됨에 따라 원어민교육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외국어전문교육기관이 차질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역내 대학과 기업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유망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다. 유아 및 아동의 놀이방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국가교육의무화 추진을 통하여 교육환경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겠다. 또한 학군제 조정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의 일방적인 제도 적용으로 학교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사교육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지역 초,중,고교들의 전인교육과 지식교육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약 2 **‘노인복지청’ 신설, 어르신 등 노인복지 향상 추진**

- 한국도 15년 이내에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개인 및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노인 인구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금부터 실버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의료대책과 실천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고, 노인학대, 치매,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료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급격한 노인국가에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한꺼번에 막대한 복지재정과 예산이 투입된 관계로 국가전체의 각 분야 재정사업 추진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금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충
남

공약 3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지원내용 대폭 강화 추진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고, 홀대받을 수 있는 국민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애인 보조기구지원법’ 등의 입법 추진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사회생활 향상을 위한 ‘장애기구 표준화 및 국가지원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약 4

국도21호선 왕복8차선 조기 완공 추진 아산권 교통망 전면 개선 추진

- 아산최대숙원사업이자 현안인 국도21호선 확장사업이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접도시나 외지인이 아산으로 진입, 진출하는 중심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2011년까지 건설이 완공되는 것을 미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상습정체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국도21호 배방-천안구간이 최근 몇 개월사이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고, 2006년말 기준 6만4천여대 정도였으나, 현재는 7만여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배방면 일대신축 아파트 4개 단지 입주로 3,600여명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월아산신도시 입주시 상습정체 구간인 국도 21호(아산-천안) 등은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국도21호선8차선 확/포장 공사는 사업추진이 늦어지며 2013년께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이명수후보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도21호선 확/포장공사의 조기 완공으로 천안-아산간의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아산권 주변 교통망 개선을 통하여 아산으로의 유입, 유출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약 5

온천명성회복과 온양뉴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 인근지역보다 10년이상 뒤쳐진 아산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침체된 온천산업의 부활과 온양권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표온천의 하나였던 온양,도고,아산의 온천들이 옛명성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온천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산온천만의

차별화된 온천임을 널리 알리고, 온천엑스포의 유치와 개최를 통하여 지역온천의 활성화와 전국축제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아산시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임금님 행궁제’를 국가행사화 지정을 통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행사로 진행하고, 온양권 주변에 조성할 계획인 신정호관광단지, 곡교천 생태공원, 외암 민속단지와 당림미술관, 맹사성 고택을 연계한 관광지화 등과 연계하여 온양, 도고, 아산온천의 옛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온양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형 개발을 통하여 아산신도시와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타지역에서와 같은 거주주민들의 여론과 의사가 배제된 가운데 일방적으로 관과 개발주체에 의해 주도되는 개발사업이 사전에 차단,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명품온양온천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소요재정의 조달문제, 주민보상문제, 인근 문화재 및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연관작업 및 연구 등에 대해서도 사전 철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구명	서산시 · 태안군	변웅전
정 당 명	자유선진당	

공약 1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 개정

-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정한 3천억원 한도내에서만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최소한의 면피용 법안입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피해보상 및 생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보상과 신속한 선보상금 지급을 통한 생계지원, 완벽한 피해 복구, 수산업종합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의 국가의 책임조항 누락
 - 국가의 배상책임 추가
- 소송비용의 지원 근거 누락
 - 근거규정이 없으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피해어민들이 감당 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비용 지원 규정
- 특별대책위 구성에서 주민대표 제외
 -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멤버에 주민대표 추가
- 특별지원대상에 대한 근거규정 모호
 - 무자료 · 무면허 · 무허가 어업, 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자, 음식 ·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에 적시
- 지역의 수산업발전대책, 문화관광진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음
 - 수산업발전대책과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반영
- 어업인들의 특별지원
 - 어업권 반납, 휴폐업시 어선 어구 매입과 휴폐업 지원 규정
- 원인제공자에 대한 무한책임
 -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공약 2

서산목장에 국내 최대의 방송센터 유치

- KBS, MBC에서 30여년간 아나운서, MBC 예술단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서산목장(삼화농장)에 국내 최대의 방송제작센터를 유치하여 서산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방송제작센터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건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고 세수증대, 관광수입증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서산이 충남 제 1의 관광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 1122만㎡(약 340만평)에 달하는 서산목장에 33만㎡(약 10만평)규모로 드라마·쇼·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TV 오픈스튜디오와 야외촬영세트, 세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지어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 실천방안

- 방송제작센터 건립 시기와 규모
 - 오픈 TV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세계영상테마파크 등의 문화콘텐츠단지로 건립
 - 2009년 건립 시작 2013년 완공(사업기간 5년)
 - 5년간 총사업비 700억원
- 방송사, 서산시, 충남도로 유치협의체 구성
- 자원조달방안
 - 중앙정부(국비), 도예산, 시예산, 민자유치

공약 3

태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 태안 기업도시 조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서해안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태안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14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6만명에 달하는 고용파급효과가 생겨 납니다. 또, 기업도시를 운영하게 되면 1년에 13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대되고 연 77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자본 유치,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방문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실천방안

- 현재의 관광산업 구조를 1일 방문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바꿔 지역의 낙후성 탈피
- 4,727만평의 면적에 생태스포츠공원,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아카데미, 웰빙타운, 청소년 문화공원, 생태체험공원 등을 조성

- 사업진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6,518억원 △2008년 4,463억원 △2009년 5,710억원 △2010년 3,666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공약 4

천안 ~ 당진간 고속도로 태안까지 연장, 대전 ~ 당진간 고속도로 대산까지 연장

- 대산석유화학 357만평, 안흥항 건설 등으로 산업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국도는 병목 및 교차로 등으로 지·정체 구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으로 발생할 서해안 관광수요 급증에 대비한 내륙간 고속도로 연결, 태안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기간도로망 확충을 위해 천안 ~ 당진간 고속도로를 태안까지 연장(32km)하겠습니다.
- 대산항은 서해 중부권 해상 물류센터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충남 서북부 산업지역의 수송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남당진 IC에서 대산을 화곡리까지 24km 구간을 연장하겠습니다.

■ 천안 ~ 당진간 고속도로 태안 연장 실천방안

- 국비확보 적극 노력
 - 위치 : 당진(서해안고속도로)~태안군 태안읍
 - 사업량 : L(길이)=32km, B(넓이)=23.4m(4차로)
 - 추정사업비 : 6,0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8년~2019년(12년간)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실천방안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의 필요성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
- 관련 예산(국비) 확보 노력
 - 위치 : 당진(서해안고속도로)~대산간
 - 연장 : 24km
 - 사업비 : 4,520억원
 - 사업기간 : 2008~2018(10년간)

공약 5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름유출피해 전지역 확대 개최

- 천혜의 바다와 어우러진 친환경적 꽃박람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태안군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2009년에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

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부차드 가든은 약 20만㎡(6만여평)에 달하는 정원 가득 세계 각국의 꽃과 나무들이 가꾸어져 있는 100년이 넘는 정원입니다. 석회석 폐광지를 아름답게 복원해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안면도 꽃박람회를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개최하면 한국의 부차드 가든이 되어 태안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관광수입증대, 청정태안의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천방안

- 서산시, 충남도와 꽃박람회 확대 개최협의
- 관련예산(국비) 확보
 - 안면도 꽃박람회에 13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가 20억원, 도비 20억원, 기타 90억원임
 - 확대 개최시 현재 계획된 사업의 국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선거구명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이인제
정당명	무소속	

공약 1 국방과학 복합산업단지 조성

- 2007년 국방대 유치를 성공한 논산시와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메카로서 이미 관련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어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논산시와 계룡시 일원을 ‘국방과학복합산업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08년 사업을 시작하여 주거·상업·의료 등을 갖춘 40만 평 규모의 자족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 중이다.
-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남도가 계획중인 국방과학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중앙정부,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반드시 클러스터가 논산과 계룡 일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논산시는 이번 사업을 2008년 시작하여 2012년도(5년간)까지 분양을 완료할 예정 이고 1,071,100 개발에 예상되는 조성 사업비는 730여억원으로 개발 주체는 충남 개발공사 또는 민간개발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선이 되면 사업기간의 단축과 조성 사업비의 규모를 재고하여 논산과 계룡을 군사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낙후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공약 2 탐정호 개발 사업

- 논산시는 탐정호 수변 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 년도(4년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연꽃 및 야생화 단지, 관찰 보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마련 중이다.
- 탐정호 주변 가야곡, 부적, 양촌면 일원 약 500만㎡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논산시의 이번 수변 생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논산 8경 중 2경인 탐정호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번 사업은 이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탐정호의 수질을 농업 용수기준의 수질로 보전하면서 동시에 대단위 위락지로 개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탐정호 개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개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당선이 되면 농촌기반공사나 필요하다면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논산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이나 환경오염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 개발과 환경이 양존하는 탐정호를 만들어 대둔산과 관촉사, 계백장군 유적지, 육군훈련소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주 5일제에 따른 관광객유치로 관광 논산을 만들 것이다.

공약 3 '세계 군문화 엑스포' 상시 계룡시 개최

- 국방부와 문화관광부, 충남도가 공동주최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3년 10월 중 충남 계룡시 일원에서 2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모두 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나 아직 국제적인 이벤트 성격의 국가사업으로 선택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상시적인 행사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군문화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당선이 되면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상시적 행사로 발전시켜 계룡시를 세계적인 군사,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약 4 충남 남부권(용담댐)광역 상수도 사업 문제점 해결

- 금산군은 2011년부터 용담댐 물을 금산지역의 상수도원으로서 용수공급을 받기위해 2005~2010년까지 총 사업비 707억원을 들여 송배수관로(L=23.9)와 취·정수장 1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금산군 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진안군과 그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원만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 당선이 되면 수자원공사, 관계기관, 그리고 진안군수와 군 주민들을 만나 금산 광역 상수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금산군이 원만한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약 5 개발촉진지구 내 기업체 유치

-
- 2008년 2월 25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금산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한방과 관광 및 산업특화지구로 지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개발 계획 확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37억원이 금산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 금산군의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진산면 일대 142.63km²가 금산의 대표 브랜드인 인삼, 약초 등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지구로 개발될 예정이고, 한방연구소, 인삼·약초 전용농공단지, 한방 바이오 밸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금산군은 올해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2008년 4억 투자 용역 실시, 2008~2011년까지 총사업비 : 189억원)과 제2지방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유치에 추진하고 있다.
 - 당선이 되면 정부가 2013년까지 투입할 3,137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삼, 약초를 원료로 하는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선거구명	부여군 · 청양군	이진삼
정당명	자유선진당	

공약 1 지역경제 인프라 조성

- 부여 · 청양(이진삼) / 예산 · 홍성(이회창) / 공주 · 연기(심대평) 삼각벨트를 형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 부여-청양, 부여-공주, 부여-논산, 부여-서천 도로공사 2년내 완공 및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여-청양-화성 고속도로 등 관내 교통망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도로 정비하고 확충해 지역경제 인프라 조성

공약 2 노인인구 증가 및 인구감소 해소 관련

- 농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와 농업 비생산 인구 증가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노인분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경지담보연금제도를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노후생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입법 및 관련법 정비
- 휴경지 및 담보 농경지를 귀농희망자에게 장기 임대 또는 무상제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조 사업을 진행

공약 3 국립전통문화학교 및 교육정책 관련

- 설립을 추진하고 완성한 국립전통문화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고 대학원 과정을 신설
- 국립전통문화학교와 역사문화도시 부여 · 청양을 연계해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해 관광상품화 하고, 관련 인구의 유입을 유도함.
- 교육기관의 유기적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및 질의 향상, 예산의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 · 자립형사립고 등 공주 한일고의 모델과 같은 형태의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공약 4

관광 문화 관련

- 칠갑산 청정지역을 병·요양 및 관광과 연계해, 주거형 참살이(웰빙) 마을을 조성해 인구유입과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국립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체험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캠프를 상시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공약 5

부여·청양 발전 마스터플랜

- 고도보존법, 고도제한법 등 각종 행정규제로 40여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인 현 부여도심을 역사문화도시로 리모델링하고, 백제-부여 테마에 맞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 유도
- 부여의 수박 메론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지역 특산물 판매 활로를 다양화 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품 포장 및 선별 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유치
- 청양의 대표적 특산물인 구기자 맥문동 고추의 경우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생약재배 농가 및 생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신설하고 수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
- 계룡대 등 대전·충남지역에 배치된 군관련 기관의 배후도시로써 군납업체를 유치하고, 부여·청양 농축산물 및 생산품(주둔지역 생산품) 대한 군납 의무제 입법 발의

선거구명	홍성군·예산군	이회창
정당명	자유선진당	

공약 1 **도청신도시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홍성·예산을 만들겠습니다.**

- 도청신도시와 홍성·예산을 연계하는 교통, 도시기반시설 건설
 - 홍성-예산-서평택을 연계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도권 전철을 도청신도시와 연장추진하며, 홍성화양역~예산삼교역~경기안산을 잇는 서해선 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 신명품도시와 상생하는 명품도시 홍성
 - 홍성을 역사, 문화, 교육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유치와 특성화고교를 육성하고,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 생활소비재 유통 중심, 물류·유통 중심, 관광과 휴양·첨단산업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 도청신도시와 조화로운 전원형 산업중심도시 예산
 - 덕산온천 특구지정과 특급호텔 유치, 도청인근 지역을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예산을 관광·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이 외에도 문화·복지·체육 다목적 종합시설 신축 및 실버타운, 종합리조트시설 유치로 예산을 전원형 산업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약 2 **홍성·예산의 농·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유기축산단지 조성, 축산분뇨유기질 비료자원화와 바이오매스 대체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홍성·예산을 농축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과 행정, 기업을 결합하거나 농가, 대학, 농업기술원, 신암가축약품단지과 제약단지를 결합하는 축산바이오 산업의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유통체계개선 및 유통지원으로 홍성·예산의 농축산물이 전국적 명품이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토굴햄(생햄)과 황토사과의 명품화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 상품이 명품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사과거점산지 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를 확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성·예산에 친환경농업지구를 확대하고, 고갈습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을 지원하여 홍성·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친환경상품으로 인식, 고소득상품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
남

공약 3

홍성·예산을 평생교육실현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홍성·예산을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여, 평생교육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교육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홍성·예산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성화 대학을 설치하고,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홍성·예산의 지역특화산업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고등학교를 설치하겠습니다.
- 지역 NGO와 연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성·예산을 평생교육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약 4

홍성·예산을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현재 8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 마을 경로당을 재가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맞벌이 가정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촌가정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치(틀니)의 의료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2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예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5

홍성·예산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의 확대 추진으로 홍성·예산을 관광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덕산온천을 특구로 지정하고, 특급호텔을 유치하여 여가·휴양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최영, 성삼문, 추사 김정희, 만해 한용운, 매헌 윤봉길 등을 잇는 충절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예당생활권 개발을 위해 예당저수지 호반특구지정과, 광시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테마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 연안생활권(갈산, 결성, 서부)을 개발하여, 남당-어사-궁리의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가야산권의 세계문화복합유산 등재로 홍성·예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성·예산 종합 관광안내도를 작성,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당진군	김낙성
정 당 명	자유선진당	

공약 1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당진항을 2020년까지 49선석을 만들어 9천만톤의 하역능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항 개발을 위해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진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항만 개발계획을 재조정하여 공용부두를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부두와 평택항만청 당진출장소, CIQ(검역, 세관, 출입국관리)기관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한진~행담도간 연육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평 매산리~ 내항 서부두간 항만진입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공약 2 서해선 복선전철(수원-당진 합덕-홍성)을 조기 착공하여 남부권인 우강, 합덕, 순성, 면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2017년에 완공될 서해선 복선 전철의 노선이 당초 화성 야목에서 예산으로 계획된 것을 수원 원시에서 홍성 화양으로 노선변경시켜 당진 남부권인 우강·합덕을 경유하도록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합덕 지역에 역을 설치하여 우리 당진군 전체의 발전은 물론 남부권인 우강, 합덕, 순성, 면천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화물 터미널 설치 등 역세권을 개발하여 물류의 집배송 기능 및 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물류수송을 위한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 3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석문·송악단지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조기 개발하겠습니다.

- 그동안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위해 인근 시·군 국회의원, 자치단체와 함께 합심 노력하여 2007년 12월 21일,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우리 당진군의 석문, 송악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군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진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자정보 등의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외국인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외국인 초·중·고등학교가 복합된 외국인 학교를 석문과 송악에 각각 설치하겠습니다.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석문·송악단지에 종합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4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업·농촌 회생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동안 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오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법안 등 7건의 농업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당진군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250억의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원 마을조성사업을 통해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당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에 힘쓰겠고, 현대제철과 협의하여 현대아산병원의 분원도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5

신도청-합덕-우강-당진항을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4차선으로 확·포장하겠습니다.

- 신도청과 합덕, 우강, 당진항을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남부권인 우강, 합덕, 순성, 면천을 신도청의 배후 전원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산 가곡~대산간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을 조기 건설하여 이 도로와 연결시켜 석문국가산업단지, 석문·송악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항 등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철도운송으로 연계시켜 우리 당진군의 육상물류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